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 개최

NH농우바이오 ‘산타꿀’ 대통령상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채소·과수·특용·버섯·화훼 등 종자 산업 전반의 발전과 수출 확대,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에 기여한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시상은 대통령상 1점(부상 5천만 원), 국무총리상 2점(각 3천만 원), 농식품부장관상 5점(각 1천만 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품종의 경우 상금은 절반만 지급된다.

올해 대통령상은 ㈜NH농우바이오가 수상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수박 품종 ‘산타꿀’은 겨울

철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 조건에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품종으로,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두 품종이 받았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딸기 품종 ‘금실’은 물러짐과 기형과를 개선하고 높은 당도를 구현해 국내 수출 딸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품종으로 자리매김했다.

㈜NH농우바이오의 할라피노 고추 품종 ‘임페리얼’은 캔 가공 전용 품종으로, 멕시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피클 가공용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외에도 ㈜더기반의 ‘티와이 샤프트(토마토)’, 농촌진흥청의 ‘알찬미(벼)’, ‘옐로 드림(복숭아)’,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한국-브라질 농약 등록 평가체계 정보교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농촌진흥청 제공)

‘청자 5호(콩)’, 춘종묘의 ‘에이피 1(수박)’이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립종자원 이상훈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국내에서 육성한 우

수 품종을 선발·시상함으로써 육종가와 종자 기업의 신품종 개발 의욕이 더욱 높아지고,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품종 개발부터 해외시

장 진출까지 종자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ontimes.com

농협중앙회, 4억 원 규모 쌀 기부

협동조합 간 협력으로 지역사회 기여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가 2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심가득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총 4억 원 규모의 쌀을 기부했다.

기부 행사는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아이쿱생협 신미경 회장 등 협의회 6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농심가득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회원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오늘 행사는 협동조합들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협동조합 간 협력이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 회원기관들은 쌀 소비 촉진과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침밥차’ 행사를 각 기관 로비에 실시했다. 이는 회원기관이 함께 동참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한 사례로, 아침밥의 중요성과 우리 쌀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2009년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아이쿱생협 6개 기관이 함께 결성해 출범한 협의체로, 매년 회원기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가락시장 김장비용 22만~25만원 ‘가성비 우위’

김장재료 구매비용 조사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 1주부터 12월 1주까지 매주가락시장(가락물) 내 김장재료 구매비용(이하 김장비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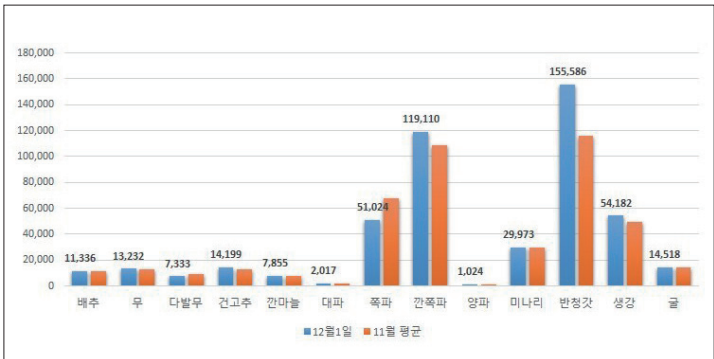
공사가 12월 1일 기준 가락물 내 72개 점포를 대상으로 주요 김장재료 12개 품목의 구매비용을 조사한 결과, 신선배추를 사용할 경우 김장비용은 253,900원, 절임배추를 사용할 경우 228,100원으로 나타났다.

절임배추를 이용한 김장비용이 약 3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

로 확인됐는데, 이는 절임배추 이용 선호 증가로 공급량이 확대되며 가격 경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는 출하량이 늘었

음에도 가격은 보험세를 유지했다. 10월 잦은 폭우로 생육이 지연되며 상품성 차이로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한 영향이다.

12월 1일 기준 배추(상품)의 평균가는 11,330원, 무는 13,230원으로 전월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대파·쪽파



▲그래프

등 채소류는 수도권 김장 성수기 진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했고, 고춧가루·새우젓·멸치액젓·전일염 등 부재료는 보험세를 보였다.

공사는 김장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기초식품 5개 품목의 가락물 판매가격도 함께 발표했다. 생새우 동백하(신안)는 최근 조업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해 1kg당 31,8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고흥 자연산 굴은 지난주와 동일한 2kg 47,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굴의 경우 기존 하감과 김장철 수요 증가로 판매가 활발하지만 전년보다는 저렴한 수준이다. 수육용 돼지고기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며 삼겹살은 1kg 28,700원, 앞다리살은 1kg 14,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ontimes.com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책범위 확대 및 농지 유지 명문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가

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

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26.7. 시행 예정)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농사도 착착! 숲도 착착! 공익직불제가 더 든든해집니다

더 확대된 지급 대상 농지

제도 개선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하천구역 내 농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편입 농지	직불금 지급 금지	친환경농업(인증)을 하는 경우 지급 영농활동 종사시 지급(보상 전까지)

더 유연해진 농업인 지급 요건

제도 개선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휴경지 관리방법	연 1회 경운(耕耘) 의무화	경운 활동 외에 피복식물 식재 또는 잡목 제거 등 인정
농업인 교육	연 2시간 이상 정규교육	신규·전년도 위반사항 적발·정규교육 그 외: 전화, 온라인 등으로 5~15분 교육
공동농업 경영체	1년 영농경력 필수	지급요건 중 영농경력 1년 요건을 면제하여 구성 즉시 수령 가능

공익직불제때문에 산다! 모두의 삶을 살리는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농외소득, 경영체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문의

국번없이 133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